



수필은 말맛과 진정성으로 이룬다.
언외(言外)의 의미를 길어 올려야 한다.
최민차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모임 안내

[월 레 회]
매월 셋째 목요일 6:30pm - 9pm
한국교육원 102호
68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연락처: 818-468-5850(김화진)
323-440-1051(이현숙)
웹사이트; <http://jaemisupil.com>

[동네방 모임]

<u>엘에이방</u>	<u>오렌지방</u>
연락처:이현숙 (323-440-1051) 정조앤 (310-634-6243)	연락처:장덕영 (626-322-7802) 최숙희 (310-408-5584)
<u>밸리방</u>	<u>주말방</u>
연락처:김카니(213-500-0400)	연락처:박신아 (213-265-8059) 여준영 (213-248-7033)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뉴스레터 제 59호

퓨전수필

2017 Fall



협회장 권두 에세이

초대글

회원수필

가을이 불어오는 곳/ 김화진

솔뱅의 아버지/ 유혜자

산거도사/ 김석연

7월의 회상 / 백인호

어떤 날 / 성영라

강경 가는 길/ 박유니스

하얀 쌀 죽/ 임지나

도우미 아가씨와 I Massage/ 성민희

땅벌에 쏘이다/ 신순희

구연의 시대에서 배우라/ 여세주

공부합시다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재미수필문학가협회

가을이 불어오는 곳

김화진



개과천선이라고 하지요. 게을리 했던 지난 몇 해 동안을 반성하며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땀이 흐르고 심장 고동의 속도가 빨라짐을 느낍니다. 이대로 열심히 계속하면 늙어가는 몸과 마음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 희망을 가져 봅니다. 삶의 여름이 지나가며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뻘죽했던 감정은 무더진 것 같으면서도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고 눈물도 흔해졌어요. 대신 허상을 꿈꾸는 실속없는 자리를 펼쳐놓진 않습니다. 살면서 겪어 온 많은 일이 순간의 판단력을 길러 준 소중한 기억입니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트레이더 조에 들렀습니다. 일반 마켓에 비해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취급하지요. 이것저것 바구니에 넣고 계산대로 향하는 길목에서 가을을 발견했습니다. 할로윈 시즌이 다가오면서 파이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펠킨입니다. 작은 크기에 진하지 않은 주황색 호박입니다. 많이 쌓아 놓지는 않았지만 계절의 맛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을의 산산한 쓸쓸함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끝나면 온 천지에 펼쳐질 황금색을 미리 퍼다 깔아 놓은 듯 합니다.

일년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계절이지만 그때마다 다른 모양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매일의 시간 속에 쌓여지는 추억의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을을 추수의 때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마음 한 구석을 비우는 시절이란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키워놓은 열매를 내어놓은 자리를 다시 무엇으로 채우기 위해 준비의 작업이 필요한 거죠. 오래 전 떠난 사람이 돌아와 현관에 들어설

것 같은 기다림이 앞서는 가을입니다. 분주했던 시간을 넘어 그리운 사람과 마주앉아 밤새 밀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빈 마음이 부유해질까요. 가을바람은 우리 가슴에서부터 불어오는가 봅니다.

탁자 위에 주황색 호박을 놓았습니다. 계절이 깊어지면 펠킨 속를 비워 내고 단풍의 색깔을 닮은 맛있는 파이를 만들 겁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가을빛은 바래고 하얀 계절이 찾아 오겠지요. 그 위에 우리는 어떤 색깔을 물들이게 될까요. 욕심없는 마음에 푸른 꿈이 넓게 펼쳐질 것을 그려봅니다. 우리의 삶을 채색하는 글이 담겨질 커다란 바구니를 장만하겠습니다. 가을 향기를 마시며 오래 걷고 싶습니다.





귀뚜라미 소리

수필가 유혜자

귀뚜라미는 시인보다 먼저 때문지 않은 순수한 언어로 가을의 시를 읊조린다. 새벽에 뜰에 나서면 불꺼진 밤에 시를 읊다 떠난 귀뚜라미의 흔적처럼 말갭게 맺힌 이슬방울. 어딘

가 숨어서 귀뚜라미는 읊조렸던 시에 대한 평가를 숨죽이고 지켜볼 것이다.

때로는 청명한 하늘을 손으로 떠받쳐 들고 싶지만, 지난 것은 가냘픈 노래밖에 없어서 창호지 사이에서 읊조리다가 지창에 어린 제 그림자에 놀랐으리라. 지난 가을에 겪었던 가슴속의 사랑, 기쁨, 슬픈 비밀까지 도란도란 이야기할 때는 창밖에서 은밀하게 귀 기울리다가 구슬픈 뉘두리에는 물기 머금은 소리로 처량하게 울어댄다.

어느덧 첫 수필집을 펴낸지 23년이나 됐다. 귀뚜라미 소리가 울음이나 노래냐. 새가 우는 것인가 노래하는 것인가의 정답을 논하는 것만큼이나 글쓰는 것이 고통인가 기쁨인가를 단정하지 못하겠다. 귀뚜라미는 고뇌와 외로움으로 지친 가슴에 다가서고 싶은 것을 억누르며 문틈에서 머뭇거린다. 번민하고 회의하는 이에게는 외로운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천장 위에서나 마루 밑에서도 울어댄다. 지친 영혼들을 지켜주기에 목이 쉬는 줄도 모르고.

멀리 숨어서라도 그리운 이의 행동을 감자하여 함께 잠 못 이루고, 때로는 한숨 쉬는 호흡에 맞추느라 초조하여 노래를 멈춘다. 그러다가 꿈속에 빠진 이들의 머리맡에는 어지러운 꿈길을 다독거려 주는 귀뚜라미.

수필은 다른 장르보다 엄격한 규격없이 집안의 귀뚜라미처럼 사람들의 애환을 잘 알아서 담는 길로 여기고 출발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세월을 여무는데 글은 쭉정이인 걸 안타깝게 여기게 된다. 그리고 없어서 아쉬워하지 않고, 고요를 원하는 이들을위해 날이 밝으면 어느 폴섬으로 잠적해버리는 귀뚜라미 같은 존재여서 허탈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귀뚜라미는 사연 많은 사람들의 돌도 없는 벼이었던 사실을 잊지 않는다. 귀뚜라미가

없는 가을 저녁은 얼마나 적적할까. 미지의 길을 찾으려 회의하면서도 슬기롭게 건디어내는 인내심을 길러 준다. 의미 깊은 후렴처럼 자꾸만 반복하며 일깨워주기도 한다.

우리가 배를 탔을 때 흔들리는 것이 자신의 의지보다는 배의 밑에서 흐르는 물살의 영향이듯 우리 삶의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어느 조화의 힘이라는 걸 구뚜라미 우는 밤에 깨달아 본 일이 있다. 별도 달도 없는 밤에 귀뚜라미와 함께 새벽을 기다리다가 어둠이 줄어드는 순간, 맘속에 떠받치고 있던 불씨가 뚜렷이 떠오르기도 했다. 불씨 같은 작가의 예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예민한 사람을 '귀뚜라미 사촌' 이라고 했다. 귀뚜라미의 언어를 모른다고 자탄하기 전에 그들의 신선하고 또랑또랑한 발음을 느낌으로 터득해야 한다. 영혼의 깊이에서 우러나는 청초한 언어의 기도를. 안개 속의 언어이듯 빗줄이나 내음도 어렵뜻하고 그윽하여 소음 사이에서 해독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러나 귀뚜라미 울음은 옛된 소리나 노숙한 소리가 구별되지 않고 또랑또랑해서 좋다. 수필 속에서 연륜이나 관록은 느껴지지 되 허무하지 않고 참신한 생명력이 있었으면 한다. 초원의 한자락 푸른 그늘에서 우는 맑은 소리에는 우리의 영혼도 맑게 씻길 것이다.

모래알처럼 흘러내린 낮 동안의 언어를 맑게 씻고 고치에서 나방이로 화하는 밤의 통로를 거쳐야 하리라. 정선된 언어로 그렇게 승화되는 멋진 글을 쓰고 싶다. 안개 속에서 맑음과 갸, 바람을 관측하기도 하는 귀뚜라미의 지혜를 우선 닦아야 한다. 그리고 귀뚜라미 노래처럼 공명을 켜서 때로는 울적하게 울고 때로는 우렁차게 함창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마른 풀이 쓸쓸하게 물결 지어 흐르는데 귀뚜라미 노래에 허무와 좌절의 휘파람만으로 화답할 것인가. 흐리고 핏발 선 눈으로 헤맬 때, 맑고 청량한 노래로 우리 삶의 방향과 지표로 인도해 주던 것이 귀뚜라미의 진실이 아니다. 미로를 헤맬 때 향기 있는 글로 등대가 되고 싶은 작가의 욕심을 일깨워준다.

<글을 잘 쓰려면>

글쓰기는 어렵다. 남보다 글을 잘 쓴다는 사람들, 나아가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 작가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대문장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첫 문장이 쉽게 떠오르지 않으면 연필을 마구 깎아대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한 미국 작가는 글쓰는 일에 견주면 “사는 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다.

문학작품의 산고(産苦)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에게 학창시절 글짓기 시간은 지루하고 당혹스런 기억으로 남아있기 일쑤다. ‘봄’이니, ‘낙엽’이니, ‘남북통일’이니 하는 천편일률의 주제들은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데, 쥐어짜듯 몇 줄 써 놓고 아직 한참 남은 원고지의 공백에 막막해지던 심정 말이다. 그런데 사회로 나와도 곤혹스런 글쓰기와 영영 이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다 못해 자기소개서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서, 보도자료 한두 장을 쓸 일이라도 생긴다.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글쓰기는 더 까다롭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맞춤법과 문장은 제대로 뒀는지, 의도한 바가 잘 담긴 글인지 도무지 자신이 없다. 요즘은 ‘자기표현의 시대’다. 말도 잘해야 하지만, 글로써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그 원칙들을 살피고, 분야별 글쓰기 요령도 점검해 본다.

* 많이 읽고 많이 써야 한다

가장 흔히 나오는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으로는 ‘많이 읽고 많이 쓰라’는 조언이다. ‘감동적인 글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감동적인 글을 쓸 수 없다’는 말도 있다. 시인 김수영은 일기에서 ‘피로써 책을 읽고 무기로서 쌓아두어야 한다’고 적었다. 작가 김원일 씨는 문학을 하게 된 동기의 첫째를 독서체험으로 돌린다. “남의 글을 부지런히 읽다보면 나도 글을 쓰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글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자비를 들여 수필집이나 자서전을 출판하기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는 수천명의 사이버 칼럼니스트들이 활동 중이다. 구청 공무원이 소설을 쓴다거나 현직 순경이 자신의 경험담을 인터넷에 연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글쓰기에 대한 전망은 크면서도 그 밑거름이 되어줄 글읽기에는 여간 소홀한 게 아니다. 한국 성인의 독서량은 한 해 평균 10권을 밑돈다.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한번쯤 자신이 얼마만큼 치열하게 책을 읽고 있는지 헤아려볼 일이다.

* 좋은 문장을 외운다

민음사 편집부장 장은수씨는 “글쓰기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글을 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문장교육만큼은 좋은 글을 외우는 주입식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선시대 지식 엘리트의 평균수준은 지금보다 높았다. 조선시대 서간문을 보면 고금의 전거를 넘나들며 유려하게 문장을 펼칠 뿐 아니라 논리정연하기까지 하다. 이것은 당대의 교육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다.

옛날 선비들이 어릴 때부터 달달 외우다시피 하며 배운 ‘천자문’이나 ‘논어’ ‘맹자’ 등은 사실 시와 논설문의 전형 아닌가. ‘동문선’도 고금의 대표적인 문장들을 모아 70여 가지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참고서다.

결국 선인들은 이런 문장들을 되풀이 익히고 외움으로써 ‘동서고금의 아름다운 문장이 뿔속에 흐르게 한’ 것이다.” 모델이 될만한 좋은 글을 많이 접해서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는 글쓰이의 독창적인 사고와 표현체계는 물론 논리적이고 수사적인 글쓰기의 기본 요령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처음에는 재미있고 쉬운 글에서 시작해 점차 정도를 높여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동아 신문 2006년 2월호

달을 쏘다.

윤동주

. 번거롭던 사위(四圍)가 잠잠해지고 시계 소리가 또
 렷하나 보니 밤은 저옥이 깊은 대로 깊은 모양이다.
 보던 책자를 책상머리에 밀어놓고 잠자리를 수습한
 다음 잠옷을 걸치는 것이다. 『딱』스위치 소리와 함
 께 전등을 끄고 창녀의 침대에 드러 누우니 이때까
 지 밝은 휘양찬 달밤이었던 것을 감각치 못하였었
 다. 이것도 밝은 전등의 혜택이었을까. 나의 누추한
 방이 달빛에 잠겨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슬픈 선창이 되는 것이다. 창살이 이마로부
 터 콧마루, 입술, 이렇게 하얀 가슴에 여민 손등에까
 지 어른거려 나의 마음을 간지르는 것이다. 옆에 누
 운 분의 숨소리에 방은 무시무시해진다. 아이처럼
 황황해지는 가슴에 눈을 치떠서 밖을 내다보니 가을
 하늘은 역시 맑고 우거진 송림은 한 폭의 묵화다. 달
 빛은 솔가지에 솔가지에 쏟아져 바람인 양 좌-소리
 가 날 듯하다. 들리는 것은 시계 소리와 숨소리와 귀
 또리 울음뿐 벽적 고던 기숙사도 절간보다 더 한층
 고요한 것이 아니냐? 나는 깊은 사념에 잠기우기 한
 창이다. 탄은 사랑스런 아가씨를 사유(私有)할 수 있
 는 아름다운 상화(想華)도 좋고, 어린적 미련을 두고
 온 고향에의 향수도 좋거니와 그보다 손쉽게 표현
 못할 심각한 그 무엇이 있다. 바다를 건너온 H군의
 편지 사연을 곰곰 생각할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란 미묘한 것이다. 감상적인 그에게도 필연코
 가을은 왔나보다.

편지는 너무나 지나치지 않았던가. 그 중 한 토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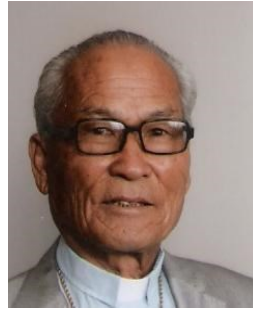
" 군아, 나는 지금 울며울며 이 글을 쓴다. 이 밤도
 달이 뜨고, 바람이 불고, 인간인 까닭에 가을이란 흠
 념새도 안다. 정의 눈물, 따뜻한 예술학도였던 정의
 눈물도 이 밤이 마지막이다. " 또 마지막 켄으로 이
 런 구절이 있다. " 당신은 나를 영원히 쫓아버리는

것이 정직할 것이요. " 나는 이 글의 뉘앙스를 해독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나는 그에게 아픈 소리 한
 마디 한 일이 없고 서러운 글 한 쪽 보낸 일이 없지
 아니한가. 생각컨대 이 죄는 다만 가을에게 지워보
 낼 수밖에 없다. 홍안서생으로 이런 단안을 내리는
 것은 외람한 일이나 동무란 한낱 괴로운 존재요 우
 정이란 진정코 위태로운 잔에 떠놓은 물이다. 이 말
 을 반대할 자 누구랴. 그러나 지기 하나 얻기 힘든다
 하거늘 알뜰한 동무 하나 잃어버린다는 것이 살을
 베어내는 아픔이다. 나는 나를 정원에서 발견하고
 창을 넘어 나왔다는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는가 왜
 나왔느냐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두뇌를 괴롭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귀뚜라미 울음에도 수줍
 어지는 코스모스 앞에 그윽히 서서 닥터 빌링스의
 동상 그림자처럼 슬퍼지면 그만이다. 나는 이 마음
 을 아무에게나 전가시킬 심보는 없다. 옷깃은 민감
 이어서 달빛에도 싸늘히 추워지고 가을 이슬이란 선
 득선득하여서 설운 사나이의 눈물인 것이다. 발걸음
 은 몸뚱이를 옮겨 못가에 세워줄 때 못 속에도 역시
 가을이 있고, 삼경이 있고, 나무가 있고 달이 있다.
 그 찰나 가을이 원망스럽고 달이 미워진다. 더듬어
 돌을 찾아 달을 향하여 죽어라고 팔매질을 하였다.
 통쾌! 달은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다. 그러나 놀랐던
 물결이 잦아들 때 오래잖아 달은 도로 살아난 것이
 아니냐,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 알미운 달은 머리위
 에서 빈정대는 것을..... 나는 곳곳한 나무가지를 고
 나 띠를 찢어 줄을 매어 훌륭한 활을 만들었다. 그리
 고 좀 탄탄한 갈대로 화살을 삼아 무사의 마음을 먹
 고 달을 쏘다.

<1939년 조선일보에 발표>

산거도사(山居道士)

김석연



산자락에 작은 방갈로를 마련하고 다리를 짚 뽕고 누웠다. 무지무지 행복하다. 대통령직을 준대도 사양하겠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 살 집을 구하다 보니 밀리고 밀려서 이 변두리 산자락, 그야말로 달동네에 싸구려 집을 하나 장만했다.

새 집을 장만했다는 기쁨으로 정원을 가꾼다. 과수원집을 만들겠다는 들뜬 마음으로 거금을 들여 과일 나무를 심었다.

봄이 되어 새 싹이 돋고 꽃을 피운다. 싱싱한 과일을 먹을 생각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사슴 떼가 내려와 작살을 냈다. 울화가 치민다.

사람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산동네에 산다고 추켜세운다. 그래, 이건 나의 별장이다. 없는 자의 서러움에 이 방갈로를 무릉도원으로 둔갑 시켰다. 산거도(山居圖) 속의 초가집에 청빈낙도하는 신세인 양 위장하고 있다. 착각 중에도 아주 중증인 불치병이 든 것이다. 일종의 정신착란 증세인 퇴행성 신경경변인 것이다.

그러나 앞뜰에 사슴 떼가 노닌다니 어느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무릉도원이 아닌가. 그래 바로 요거다. 사람들이 오면 우리 집엔 에덴동산처럼 사슴 떼들이 거닌다고 자랑을 한다. 다들 부러워한다. 이를 통해 나의 불행을 행복으로 삼으니 압사한 인간이 된다. 쥐구멍에 햇빛 든 착각에 빠진다.

사람 사는 게 다 제 잘난 맛에 산 다는데 내가 바로 그 꼴이 아닌가.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잘난 체 해봐야 꼴불견인데. 그러나 어찌랴 꼴불견이면 어떡고 못났으면 어찌랴 그래도 좋은 걸. 쥐뿔도 없으면서 별장 타령을 하니 그 허영이 위로가 되고 살 맛이 난다

소동파 선생이 젊었을 때 한간의 목마 도를 보니 진짜 말 같이 보여 감동했었는데 출세 후에 그 목마도를 보니 말 보다는 말 등에 놓인 금빛 안장이 먼저 눈에 띄더라. 미주고반(美酎膏飯)엔 금빛 안장만 보이지만 이 청빈 낙도엔 자연의 한 울로서도 행복이 넘친다.

애연가들은 구름 과자만 먹고 배고픈 줄을 모른 다더니 나는 뜬 구름에 앉아 이슬만 먹고 이빨을 쭈시는 격이니 퇴행성 신경경변임에 틀림없다.

이 산 자락엔 명예도 권세도 없지만 흰 구름이 머물다 바람 타고 떠나는 낭만이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살면 아주 조금만 가졌어도 무지무지 행복하다.

오막살이, 이는 가난의 상징이지만 이 오막살이가 내겐 무릉도원이요 산수화다. 양지 바른 산자락에 뒷동산은 나를 감싸주고, 확 트인 전망은 꼭 막힌 숨통을 확 풀어 주고, 오후의 따스한 햇살은 모든 걸 녹여준다. 천국은 가난한 자의 몫이라는 데 내가 죄뿐이냐 있었다면 이런 청빈낙도는 내 몫이 아니었을 것이다.

시원한 골바람이 스쳐간다. 풋풋한 풀 향기가 그윽하다. 모자라지만 한가하니 넉넉하고 흐뭇하다. 달빛에 고요와 평화가 묻어난다.

7월의 회상

백인호



7 월이면 파도가 출렁이는 바닷가의 해수욕장으로 달려가고 싶다. 나의 학창 시절에는 7월은 모든 학교가 방학이 시작되는 달이었고, 직장은 휴가의 달이었다. 산전은 녹음이 우거져 그들의 건강미를 자랑하는 달이기도 했다. 때로는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으로 더위를 뿜어 내었다.

청년 시절 여름 방학 때 친구들과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다. 구슬땀을 흘리며 한적한 시골길도 걷고 산모퉁이도 돌아보고 시원한 시골 바람이 부는 나무 그늘에서 쉬어도 보았다. 충남도 홍성 읍에서 대천 해수욕장까지 걸어서 가자니 꽤 먼 것 같았다. 수많은 인파 속을 헤치고 우리 일행은 백사장 한가운데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명당자리를 잡고 천막을 쳤다. 수영복을 입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벌렁 누워 휴식을 취하며 여행을 만끽했다. 서해안 머나먼 수평선에서 파도와 함께 밀려오는 바람으로 온몸은 시원함을 느끼며 나른해졌다.

해수욕장을 누비는 아가씨들이 앞으로 지나갈 적마다 친구들의 시선은 한결같이 그녀를 쫓았다. 피곤도 절로 사라지고 모두가 아가씨들에게 신경이 집중되었다. 이따금 서로 힐끔힐끔 쳐다만 보고 한마디 제대로 말도 못 붙이는 순진한 녀석들은 너의 깡다구니 때문에 이 좋은 자리를 잡아서 호강하는데 작업 한번 걸어보라며 농담을 건넸다. 하기야 늦게 와서 해수욕장의 좋은 자리 잡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난 재주가 없으니 너나 한번 해봐. 원님 덕에 나팔 좀 불자. 나는 친구의 부추김에 통명스럽게 응수를 하며 겹연쩍어 바다에 몸을 숨겼다.

옆 텐트에는 모 은행 지점장 식구들이 텐트를 치고 예쁜 딸들과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그 당시 은행 지점장은 젊은이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더욱이 딸들의 밝은 표정과 명랑한 목소리는 파도 소리와 어울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우리 일행은 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과 활기를 더해 주었다.

젊은 나이에는 누구나 흐린 하늘에 별을 관찰하는 심정으로 수많은 사람 중 혹시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눈빛으로 두리번거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젊음은 의욕이요 희망이기에 더욱 즐겁기만 하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힘찬 파도와 함께 불어오는 바람에 밀려 내 온몸은 저절로 인파를 헤치고 천사 가까이 다가갔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청년의 패기는 뜨거운 열기 아래 더욱 용기를 얻어 무언가를 나타내 보이려는 욕구가 일었다. 그것이 바로 젊음이겠지.

7월이 가면서 그 많은 인파는 사라질 것이고 전성기를 누리던 해수욕장도 외로움을 맞볼 것이다. 엄청난 고독에 쌓이겠지. 세월도 어느덧 50여 년이 훌쩍 지났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내가 노인이 되었으니 그들도 노인이 됐겠지. 젊었을 때는 인생이 무척이나 긴 것으로 생각하였다. 나이가 먹고 나니 살아온 날이 얼마나 짧았던가를 깨닫는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잠깐 머물다 돌아가는 인생.

한해의 반이 지나는 7월을 보내며 하루하루가 웬지 바쁘게 느껴진다. 멈추어 있는 듯 하다가도 끝을 향해 달리고 있어 세월의 변화를 알려 주기도 한다. 철이 바뀌면서 또 한해가 지나가는 허전함에 마음을 졸이게 되는 달이기도 하다.

인생들도 가고 있고 또 한 달의 숨 막히는 7월도 가고 있다. 하지만 내 앞에는 오늘이 있지 않은가. 친구들과 함께 했던 배낭여행은 대천 해수욕장과 함께 내 기억 속에 남아있으니 지나간 젊음을 가끔 한 번씩 꺼내보련다. 지나온 세월보다 짧을 남은 내 삶의 갈무리를 잘하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떤 날

성영라



그런 날이 있다.

엘에이 코리아타운 중고서점에 들렀다. 시집 코너에서 <<좋은시 2007>> 발견. 겹장을 넘기자마자 연필로 흘러 쓴 낙서가 결코 낯설기 않은, 보고 또 봐도 분명한 나의 글씨체다. 책을 내다 판 적이 없다. 누군가에게 선물했거나 빌려주었을 것이다. 짙막한 메모를 지우지 않고 보던 것을 준 것이라면 허물없는 사이였을 터. 누구였을까. 언제였을까. 흐릿해진 시간을 건너다시 내 품으로 돌아온 시집이여, 이제는 헤어지지 말자.

책장을 더 넘긴다. 희안한 일이다. 김태영 시인의 <디아스포라--독방>과 김행숙 시인의 <다정함의 세계> 갈피에 황달처럼 누운 꽃잎 발견. 바싹 마른 꽃잎을 빛 속에 꺼내본다. 바람과 햇살을 떠나왔지만 시 속에 누웠으니 덜 행하였으려나. 문득, 여러 해째 폐기종을 앓고 있는 친구의 폐도 이처럼 좋아들었을까, 생각이 스친다. 독방에 갇혀버린 폐여, 파피 꽃잎 바람에 팔랑이듯 시원하게 호흡해다오. 시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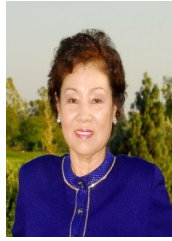
서점을 나와 교통체증이 심해지기 전에 집으로 향하는 프리웨이를 탄다. 오후 네 시. 발은 숨 내쉬며 부풀어 오르던 하루가 아지랑이 같은 숨을 고르며 평화로워지는 시간. 저녁밥을 준비하기에는 이른 시간. 대문 밖을 나선다. 온 동네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놓은 듯 조용하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무런 저항 없는 고요 속을 떠다니는 느낌이다.

집 뒷길 멀홀랜드 드라이브(Mulholland Drive)의 비포장 흙길로 들어선다. 이제부터 집들이 사라진다. 까마귀와 덩불, 나무와 황톳길이 있다. 풀꽃도 드문드문. 불가의 수행법 중 발걸음에 의식을 집중한 채 천천히 걷는 포행을 떠올린다. 승려들이 참선을 하다가 잠시 쉬면서 한가로이 뜰을 걷는 일이다. 포행을 하면서 머리에 모여있던 기를 내려보내면 경직되었던 몸이 맑고 가벼워진다. 자전거에 몸을 실은 백인 아저씨가 눈인사를 하며 스쳐간다.

모퉁이를 돌아 상수리나무를 지나쳐간다. 산책길에 가장 품 넓은 그늘을 거느리고 있는 나무다. 가장 높이 뻗은 가지 끝을 따라 올라다본 하늘에 낫달이 까무룩 하다. 다잡았던 마음 투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낫달에는 있다. 유목의 피를 잠시나마 잠재우게 하는 노래가 흘러나온다. 달빛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저만치 길 위에 검은 물체가 눈에 들어온다. 정수리가 긴장된다. 물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조용 다가간다. 검정 구두 한 켤레와 검정 셔츠. 모두 남성용이다. 구두는 낡았고 크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을 향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이 옷과 신발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생의 무게 훌훌 벗고 숲으로 갔는가?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누군가의 트럭에서 떨어진 것일지도 모르지. 떨어졌던 거라면 구두가 이리도 얌전하게 놓일 수 있을까. 마치 누군가의 몸과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아서 한참을 물끄러미 본다. 발걸음을 떼었지만 고개는 연신 뒤로 돌아간다.

그리운 것들 비밀스러운 것들 모두 느린 호흡으로 점멸(點滅)하던 어떤 날의 일이다. 그런 날이 있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경부고속도로를 남쪽으로 달리다 강경 쪽으로 가는 국도로 접어들었다. 그곳 읍내에서 양순이의 외삼촌이 제법 큰 정미소를 운영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희미한 옛 기억을 더듬어 어느 주말 남편과 차를 몰아 이제는 초로의 부인이 되어 있을 양순이를 찾아 나섰다. 가을걷이가 끝난 국도 양편의 논은 누르스름하게 누워서 파릇하던 전성기를 반추하고 있었다.

광복 이듬해에 우리 집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계동 집에서 장충단 공원 가까이에 있는 쌍림동으로 이사했다. 계동 집을 지인에게 맡기고 급히 쌍림동의 적산 가옥으로 이사한 이유는 그때가 한창 이북에서 아버지의 친척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던 시기여서 그들을 위한 넓은 집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부모님이 계동 집을 포기하신 이유로 집안에 떠도는 소문이 있었다. 그 집은 겉보기엔 양옥집이지만 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작은 중문이 나오고 중문 안은 완전한 한옥 구조였다. 거기 행랑채에 아담한 뜰아랫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곧 바로 세상을 뜨곤 했다고 한다. 아마도 예전에 그 방에 살던 어느 여인의 한 맺힌 원혼이 그곳에 떠도는 것 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현관을 통해 양옥 쪽으로만 드나들던 우리들은 당시엔 그 같은 사실을 몰랐지만 자식을 여럿 둔 부모님에게는 꺼림칙한 일일지도 몰랐다. 그 집은 원래 고종 황제가 어느 서자의 결혼 선물로 신축해서 하사했다는 집이었는데 최초의 그 집 오너에게 여러 명의 부인과 후궁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있을 수 있는 소문이었다.

쌍림 동 집 이층엔 아버지의 당숙과 사촌동생 가족들이 살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친인척들과 하루가 멀다 하고

강경 가는 길

박유니스

벌어지는 여러 집 아이들의 싸움판으로 집안은 조용한 날이 없었다. 양순이는 나보다 세 살 많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 집에 데려다 놓았다고 했다.

양순이의 등엔 늘 막내 동생이 업혀 있었는데 동생을 내려놓을 때면 우리는 소란한 집을 피해 잼싸게 장충단 공원으로 갔다.

어느 봄날 양순이와 장충단 공원에 또 갔다. 사방에 개나리가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양순이가 한 아름 따서 내 품에 안겨주었다. 바위에 앉아서 물장구를 치다가 졸음이 왔다.

“잠들면 코쟁이가 업어 간다.”

양순이가 겁을 줬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자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다시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영순이 등이었다. 건지 않으려고 자는 척 했다.

“애기씨 안 자는 거 다 알아.”

“나 자는데?”

“자는 사람이 말을 하나?”

나는 아차해서 흥얼흥얼 잠꼬대를 하는 척 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갑자기 양순이가 소리를 질렀다.

“애기씨, 저 봉숭아 꽃 좀 봐. 저거 꺾어서 손톱에 물 들어 줄께.”

양순이는 나를 길에 내려놓고 봉숭아꽃을 따기 시작했다. 우린 너무 흥분해서 그때 집안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시선도, 우리 뒤를 살금살금 따라오는 여자의 그림자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집에 도착해서 대문으로 들어가자 그 여자도 썩하니 집안으로 들어섰다. 집엔

마침 어머니가 계셨는데 우리가 자기네 화단의 꽃을 다 도둑질 했다고 일렀다. 어머니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짜리비로 나와 양순이를 후려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양순이가 나를 덜 맞게 하려고 계속 제 몸으로 나를 감싸던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

이 사건은 엉뚱한데서 났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낮의 일로 말다툼을 하셨다. 처음엔 세째 어찌고 하기에 내 애기인 줄 알고 귀를 쫑긋 세웠는데 포커스가 양순이에게 맞춰져 있었다. 그 애에게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아버지의 노기를 애써 누르는 음성이 들렸다. 하긴 나도 평소의 어머니답지 않게 양순이를 내려치는 손길에서 미움의 그림자를 보았다. 어머니는 평소에 아랫사람들에게 너그러우신 편이었다. 일산에서 곡식을 지고 오는 사람들이나 덕소에서 장작을 싣고 오는 달구지가 아무리 이른 새벽에 도착해도 어머니는 부엌에 일러 딱끈한 밥상을 채려내도록 했다. 부엌을 함께 쓰는 이층 사람들과의 모든 트러블도 오로지 집안일을 맡은 함안댁의 몫이었다. 어머니는 자주 함안댁에게 이층 사람들에게 심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원래 그렇게 살던 양반들이 아니라고.”

“그라모 누군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던 말인교?”

양순이의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의 여인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머니도 심증만 있을 뿐 확신은 없는 듯 했다. 얼마 후 양순이는 강경 집으로 내려갔다. 나는 양순이가 보고 싶어서 밤마다 이불을 둘러쓰고 울었다.

양순이의 외삼촌은 읍내에서 이름 난 정미소를 하고 있어 명절엔 인근 고을에서 찾아 왔었다는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난리통에 없어진 방앗간이 어디 한 둘 이래유?”

읍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늦가을 해는 서산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논산 쪽으로 돌아 나오다가 도로변에 있는 작은 정미소를 발견했다. 초라하고 쇠락한 건물이었는데 뜻밖에도 안에서는 방아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주인은 정미소 하던 양순이네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웃에 살았다고 했다. 전쟁이 끝난 후 양순이는 중장비기사에게 시집갔는데 첫아이를 낳다가 죽었다고 했다.

발길을 돌려 나오는데 주인의 말이 천둥치듯 내 귀를 때렸다.

“난리나기 전엔 가끔 서울 산다는 키 큰 신사 양반이 찾아 오셨드랬지유.”

‘혹시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신 아버지께 물어 볼 수도 없는 일이다.

***이라야... 이래야....**

우리말 조사의 다양한 뜻과 미묘한 쓰임새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미 활용과 더불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특히 어미 활용은 한국인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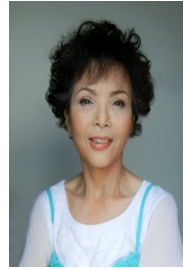
'-이라야'와 '-(이)래야'도 헷갈리기 쉬운 것 중 하나다. "한스 섬은 면적이라야 1.5km²도 안 되고 황량하며 찬바람만 부는 무인도다." "월급이라야 채 100만 원이 안 된다." 예문에서는 '-이라야'와 '-이래야' 중 어느 것이 맞을까.

'-이라야'는 어떤 일의 조건으로서 그것이 꼭 필요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다. "이 임무는 아주 강한 정신을 지닌 사람이라야 해낼 수 있다" "제철 과일과 음식이라야 우리 몸에 좋다"처럼 쓰인다. '-이라야'는 '-이어야'로 바뀌 써도 의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래야'는 '-라고 해야'가 줄어든 말이다. "친척이래야 내 남동생 부부와 조카들, 죽은 아내의 여동생이 전부였다"나 "나는 사장님이 가래야 집에 갈 수 있다"와 같이 사용된다.

하얀 쌀 죽

임지나



찌푸린 날씨가 금방 소나기를 뿌릴 것 같다.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밖을 내다보았다. 역세게 몰아치는 바람에 나무들이 몸살을 앓는다. 몸이 천근처럼 무겁다. 사방이 쑤시고 아프지 않는 곳이 없다. 울컥 몰려오는 외로움에 가슴이 답답하고 심란했다.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어른거리는 얼굴, 걱정스레 나를 내려다보는 어머니의 얼굴이다.

감기에 걸린 지 2주가 다 돼간다. 도무지 수그러질 기미가 없는 독감을 TV에서도 연일 톱뉴스로 보도하며 조심할 것을 알렸다. 예나 지금이나 몸이 아프면 어머니 생각이 절로 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머니의 마음을 대신 할 수 없는 모양이다. 남편은 내가 아픈 것조차 모르는 지 며칠을 끙끙거리고 누워있어도 눈길조차 없더니 이제야 아내의 이상異常을 알았는지 “어디 아파” 하고 물었다. 그 무관심이 서러워 나는 침묵으로 섭섭함과 미움을 대신했다.

젖은 빨래처럼 축 늘어진 아내가 안쓰러운지 남편이 뭘 먹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내가 아무 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손사래를 치자 그것이 신호등의 파란불인양 남편은 두 번 다시 묻지 않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렸다. 쿵쿵거리며 계단을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이별처럼 가슴을 찔렀다.

독감 예방주사도 맞았고 건강에 자신 만만하던 나를 한방에 KO 시킨 것은 밤새 붓 받치는 기침이었다. 창자가 끊어질 듯, 오장을 트는 기침이 목을 타고 차올라 한 번 콜록대기 시작하면 발정 난 강아지처럼 몸을 틀며 방바닥을 굴렀다. 그러다 기침이 멈추면 침대에서 보쌌을 해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든 남편이 깰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감기가 전염되지 않을까 신경이 쓰

이기도 했다. 언제부터인지 바닥에 삼단 요를 깔고 혼자 자 버릇한 것이 이럴 때는 천만다행이다.

감기 몸살은 여름날 수시로 쏟아지는 소나기 같아 며칠 지나면 저절로 나리라 생각했다. 감기는 의사한테 가도 2주, 안 가도 2주라고들 한다. 건강에 자신도 있고 또 감기 같은 것으로 의사한테 가본 적도 없어 가볍게 여겼던 것이 점점 더 심해질 뿐 호전될 기미가 전혀 없다.

두 아들은 우리 집 가까이 살지만 내가 아픈 것조차 몰랐다. 자식들이란 저희들이 필요할 때나 부모를 찾지 그렇지 않은 땀 땀 나라 사람이다. 그런 것쯤 다 졸업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지 전화 한 통 없는 두 아들이 섭섭함을 넘어 꽤썸하기까지 했다. 오다가다 한 번 쯤 얼굴을 디밀어도 되고 그냥 손가락만 까딱하면 언제든 엄마와 통화할 수 있는데 그 번거로움마저 외면하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아픈 것을 꾸역꾸역 알리고 싶지도 않다. 이럴 때 남편이 센스 있게 엄마가 아프다는 것을 아들들에게 살짝 귀띔해주면 좋으련만, 남편은 그런 융통성과는 담을 쌓은 사람이다.

어쩌다 나와 아이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겨도 남편은 그저 나보고 참으라고 한다. 엄마한테 무슨 말 버릇이냐고 한 마디 짧게 해 주면 좋으련만 남편은 그것마저 거절한 듯 내편 들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남편 복이 있어야 자식 복도 있다고들 한다. 남편이 저리 무심한데 자식들을 탓해 무엇 하겠는가. 이룰 수 없는 바람을 각별한 부자간의 끈끈한 사랑으로 대리만족을 한다.

그 동안 물과 주스로 버텨온 몸이 바닥을 친 것 같다. 비틀거리며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왔다. 앓아누워 있는 내내 어릴 적 어머니가 쑤 주던 하얀 쌀죽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그 쌀죽을 쑤 보려했지만 해본 적이 없어 심난했다. 흰 죽이니 대단한 것은 아니리라.

냄비에 찹을 씻어 넣고 웬만큼 물을 부어 가스 불에 올려놓았다. 맞춰 눈 알람이 울리면 불을 끄라고 남편한테 일러두고 이층으로 올라와 드러누웠다새삼 외로움과 쓸쓸함이 온 몸을 덮어 눌렀다. 남편과 자식이 있어도 들판에 홀로 선 한 그루 나무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아래층에서 TV를 보고 나는 방에 홀로 누워 외로움 을 타고 눈물에 푹 젖었다.

어릴 때 유난히 병치레가 잦았던 나, 내가 아프면 어머니는 온 정성을 다해 하얀 쌀죽을 씹 주었다. 아마 그것 밖에 해 줄 것이 없었으리라. 안 먹겠다고 투정부리는 나를 이리 달래고 저리 열러 어머니는 죽 한 그릇을 억지로 다 먹였다. 싫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죽 한 그릇을 다 먹은 뒤 어머니의 품에서 곤히 잠이 들곤 했다. 내가 아플 때면 어머니는 무당이 되기도 했다. 찹을 한 움큼 보자기에 싸서 내 머리 위를 푹푹 째어 누른 다음 칙칙한 무딘 식칼을 머리위로 빙빙 돌리며 점쟁이처럼 귀신 쫓는 주문을 외었다. 나는 미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머니의 간호를 받고나면 신통방통하게도 며칠 후 기운을 차리곤 했다. 어머니의 하얀 쌀죽,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으로 어머니가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밤새 기침에 시달린 나는 약을 먹고 스르르 잠이 들었다. 요란한 알람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방안에 연기가 자욱했다. 후다닥 복도로 뛰어나오니 아래층에서 검은 연기가 물씬물씬 올라오고 있다. 총알처럼 부엌으로 뛰어 내려갔다. 가스스토브 위의 냄비가 뿌지직 뿌지직 널을 뛰고 파란 불꽃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다.

얼른 가스 불을 끄고 문들을 열어젖혔다. 앞문, 뒷문, 페디오 슬라이딩 도어 창문 등등, 문이란 문은 모두 열어젖혔다. 그때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온다. 남편을 보자 안심인지 노여움인지 알 수 없는 슬

픔이 복받쳐 바닥에 퍼져 앉아 엉엉 울고 말았다. 가스 불에 죽을 올려놓고 좀 보라고 했더니 그 시간에 무엇을 했기에 이사단이 벌어진 것일까! 아파 누운 그 시간마저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설움에 스토브에서 냄비를 내려놓으며 계속 훌쩍거린다.

짜랑짜랑 고막을 찢는 스모크 알람이 골목길의 적막을 깨고 뒤뜰의 강아지까지 덩달아 짖어댔다. 남편이 얼른 천정의 알람을 열고 스톱을 시켰다. 기침에 시달리는 나를 위해 남편은 약을 사러갔던 모양이다. 어머니의 하얀 쌀죽은 고사하고 새 냄비만 태워버렸다. 그 요란한 알람 소리에 소방 트럭이 달려오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다음 날 나는 결국 의사한테 갔다. 감기에는 특별한 약이 없다고 했지만 의사한테 거는 환자의 기대 때문인지 처방 약을 먹으며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기침도 내리고 빠른 회복을 보였다. 2주를 꼬박 채운 독감은 그때서야 나를 해방시켜주었다.

남편은 하얀 쌀죽을 태운 대신 깡통에 든 치킨 누들 스프를 끓여주었다. 나는 그걸 말끔히 먹어치웠다. 먹을 만 했다. 연민의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위에 환히 웃는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졌다. 남편의 정성이 가득 담긴 치킨 누들 스프가 머리를 개운하게 씻어주었다. 기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나는 “여보, 당신 치킨 스프 일품이야” 하고 엄지를 높이 치켜세웠다.

현관문 초인종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손자들이 할머니 하며 두 아들과 함께 들어선다. “할머니, 사랑해요” 손자들이 나를 꼭 껴안았다. 갑자기 기운이 솟아올랐다. 창문 밖 나뭇가지에 후드득 빗방울이 들기 시작했다.

도우미 아가씨와 I Message

성민희



딸네 가사도우미가 그만두는 바람에 내 일상이 두 살짜리 손녀에게 붙잡혔다. 여러 곳에 광고를 내고 에이전시에 부탁을 하여 일주일이면 새 사람이 구해질 줄 알았는데 벌써 3주째다. 모든 생활이 차단된 채 딸의 집에 갇혀 기진맥진인데 딸 회사에서 임시로 도우미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왔다. 당장 도우미를 요청했다.

어제는 허벅지가 내 허리만한 히스패닉 아가씨가 오더니 오늘은 동양인 모습이 살짝 비치는 날씬한 아가씨다. 나를 보자 첫마디가 "나 한국말 할 줄 알아요." 한다. 반가운 마음에 국적을 물어보니 아버지는 오스트리아인 할아버지와 스페인계 히스패닉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엄마는 한국인이란다.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유럽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다. 외국인과 결혼한 엄마가 딸에게 이만큼 한국말을 가르쳤다니 놀라왔다.

나는 친정 부모님에 형제, 친구까지 온 사방이 한국 사람인 와중에도 아이들에게 한국말 사용을 고집하며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유치원 때까지는 그럭저럭 먹혀들었지만 초등학생이 되면서 부터는 영어만 하려고 해서 애를 많이 먹었다. 아이들이 영어로 뭘 물으면 아예 못 알아듣는다며 고개를 젓고 내가 말 할 때는 악착같이 한국말을 했다. 몇 년을 씨름을 했나보다. 4학년 쯤 되더니 두 녀석이 포기 했는지 그때부터 집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했다. 이제는 오히려 엄마랑은 영어를 하려니 어색하다고 한다. 두 녀석 모두 한국드라마를 보고 즐기고. 몇 시간씩 대화도 나눈다. 전혀 불편하거나 막힘이 없다.

그런데 이 아가씨도 한국말을 곧잘 한다. 발음만 조금 어눌할 뿐 자기표현을 하고 내 말도 다 알아듣는다. 오히려 내가 잊어버리고 영어로 말하면 되레 자기가 한국말로 대답한다. 그런데 하는 짓은 정말 맹하다. 뒷마당에서 아기와 물놀이를 할 양으로 플라스틱 물통에 물을 가득 받았다. 나는 아기 옆에 붙어 서서 장난감을 갖다 주고 물도 뿌리며 시중을 드는데 자기는 멀찌감치 수건을 깔고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땀벌에서 한참을 그리 놀다 보니 내가 슬그머니 화가 나려고 했다. "여기에 와서 아기랑 좀 놀아줄래?" 부탁을 해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아기 점심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5분도 안 되어서 따라 들어왔다. "아기가 머리를 부딪쳤어요. 겁이 나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물에 젖은 신발을 신고 마루를 저 벽거렸다.

아기 점심으로 민어를 굽고 달걀 국을 끓였다. 밥과 민어구이를 상에 올리고는 국을 푸고 있는데 아기가 의자 위로 올라가 손으로 밥을 집어 입에 넣는 모양이었다. 밥을 잘 먹네, 하는 소리가 들렸다. 국을 들고 테이블에 갔더니 아기 손에 민어가 한 조각 들려 있는데 가시가 삐죽삐죽 나와 있다. 내가 질겁하자 가시가 있는데……. 하며 자기도 놀란 시늉을 한다. 앉아있는 그녀와 아기 사이에 서서 내가 가시를 발라 주는데도 멀뚱거리며 바라만 볼 뿐 일어날 생각을 안 했다. 머리가 참 둔한 아가씨네. 또 화가 나려고 했다. "좀 일어나줄래?" 내 말이 딱딱했나 보다. 아가씨의 얼굴이 벌개지며 후다닥 일어났다. "아줌마 땀에 나 지금 기분이 아주 나빠요. 아줌마 왜 나 화나게 만 들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순간 큰일 났다 싶었다.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한국 아줌마

나빠. 하면 어떡하지. 한국사람 싫어! 하면 어떡하지
벌떡 일어나서 미안하다. 아기가 가시를 먹은 것 같
아 너무 급해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마음이 좀 풀렸
어? 미안해. 열 번도 넘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아
가씨는 생긋 웃으며 괜찮다. 이해한다. 했지만 나는
계속 미안하단 말을 했다. 너 감정을 말 해 주었기 때
문에 내가 조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애교도 떨
었다.

이 후로 나는 아기에게 딸기를 주며 아가씨에게도
따로 접시에 예쁘게 담아 바쳤다. 아기 우유를 먹이
며 아가씨에게도 오렌지 주스를 올려드렸다. 도우미
가 아니라 상전으로 모셨다. 그녀는 자기가 진짜 손
님이라도 된 양 아기가 잘 때는 아예 차에서 책을 갖
고 들어와 소파에 푹 파묻혀 읽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았다.

내 딸은 무슨 말을 하던 속으로 삭이면서 나를 편하
게 해 주려고 애쓴다. 한 번도 딸이 내게 소리를 지르
거나 빠치거나 하지 않았다. 내가 싫은 소리를 툭툭
던지고 헤어진 날에도 딸은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
며 오히려 나를 달래주었다. 한국말을 모두 알아들으
니 무심코 던진 내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
까. 생각해보니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많이 상했을 딸
의 감정이 짙하게 다가온다. 내 딸도 저렇게 표현을
했더라면 내가 더 조심했을 것이고 자신은 또 상처를

덜 받았을 것이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고 나름대
로 애를 쓰며 키웠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못한 것 같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항목이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이
라는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때로는 단호
하고 냉정하게 자신을 표현할 줄 알아야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오래 잇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오늘 맹하다며 무시했던 도우미 아가씨한테서 좋은
인간관계 유지법을 배운다. 관계 유지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감정을 솔직히 말하며 속상하다
는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녀는 현명한 사람이다. 그러
므로 자신의 상한 기분은 풀고 나의 배려도 받지 않
았는가. 남에게 무엇을 주문하기 전에 먼저 내 감정
을 솔직히 전달하는 ‘I Message’는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막아주는 좋은 방법이란 걸 또 한 번 더 느낀
다.

도우미 아가씨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퇴근할 때 나
를 꼭 안아주고 갔다.

< 2017년 8월 홈 사이트 최다 조회 작품 >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모습을 지칭하는 순우리말로는

가마리.. 항상 욕을 먹거나 매를 맞는, 혹은 걱정거리가 되는사람을 지칭 합니다.

가분재기.. 뜻하지않게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가슴길.. 마음길 이라는 뜻

가을귀.. 가을의 섬세한 소리를 듣는 예민한 귀를 일컬어요

가을부채.. 철이 지나 쓸모가 없을때를 뜻하는 우리말 입니다.

가재치다.. 샀던물건을 다시 도로 바꾸다는 뜻입니다.

가즈럽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뭔가 있는듯이 허세를 떠는것의 순우리말 입니다.

땅벌에 쏘이다

신순희



뒷마당이 너저분하다. 가뭄에 타 들어 가는 잔디는 누렇게 탈색되고 채리나무 잎은 말라비틀어져 나뒹군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건조한지 알겠다. 여름 두 달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사막이 될 것만 같다. 삭막한 시애틀의 여름 풍경이다.

뒷마당 식물이 더위에 지쳐있는데 울타리 쪽 눈에 띄게 싱싱한 것은 심지어 많았는데 자생한 플라타너스. 손바닥만 한 잎사귀가 푸르다. 물도 주지 않건만 홀로 날마다 키를 더하고 있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 손 볼 수 없이 자라 가지치기가 어려워지겠다. 발꿈치를 들고 서서 전지가위로 큰 키를 줄이고 있다.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우려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였다. 순간, 오른쪽 귓바퀴에 날카로운 통증이인다. 무엇인가?

벌이다. 벌이 공격하고 있다. 성급히 자리를 피하며 자세를 낮추지만 ‘윙’ 비행 소리를 내며 따라붙는다. 손에 쥔 전지가위를 내던지고 엉덩이를 낮추고 기다시피 집안을 향해 오리걸음이다. 귀에서 목으로 바깥 따라붙으며 머리 위를 빙빙 배회한다. 여러 마리인가? 어찌할 줄 모르겠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놈이 따라오면 안 되지. 모자와 옷을 벗어버리고 열린 뒷문을 열고 달는다. 설마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왜 나를 공격하는 거지?

욕조 샤워 꼭지에 머리를 디밀고 머리카락을 풀어헤쳤다. 묶었던 고무줄을 뽑아내고 머리를 감는다. 수건으로 대충 물기를 닦고 나니 팔뚝도 따끔거리고 허벅

지도 뜨끔거린다. 감촉이 이상해 반바지를 벗어 제치는데 그 속에서 벌 한 마리가 나온다. 너 거기 있었어? 기겁한다.

뒤도 안 돌아보고 화장실 문을 광 닫는다. 너 거기 갇혔다. 거울을 보니 귓바퀴가 새빨갳게 부어올랐다. 통증보다 더 겁이 나는 것은 귀가 급소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하필 거길 쏠 게 뭐람. 이제 어쩐다. 곁에 아무도 없으니 더 겁난다.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건다. 내가 너무 긴장했나 보다. 목소리가 떨린다. 나 벌에 쏘였어. 거실 화장실 문밖에는 ‘안에 벌 있음. 문 열지 말 것’이라고 커다란 글씨를 써 붙였다.

동네 ‘어전케어’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 한 대 맞고 먹는 약 바르는 약 처방받았다. 벌 잘못 건드리면 큰일난다는데, 급한 대로 응급처치는 했으니 안심이다. 그 나저나 내가 이토록 침착하지 못하다니 정신이 하나도 없다. 도망치느라 무릎이 까진 것도 몰랐다. 꽃 사이를 뱅글 날아다니는 꿀벌이 정겹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다.

집에 돌아오니 그새 아들이 와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뒤돌 현장을 확인하려 나서는데 아들이 말린다. 밖에 옷이랑 가위랑 팽개쳐두었는데…상관 말라고 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정하라고. 그럼 화장실에 가둔 벌은 어떡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는 대답이다.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화장실 안에 갇혀서 비실거리던 그 벌은 결국 아들이 뿌린 벌 퇴치 용 스프레이에 쓰러졌다.

나를 쏜 것은 땅벌이었다. 내가 가지치기를 한 바로 옆 땅속에 벌집이 있는 걸 몰랐다. ‘엘로우 재킷’이라

불리는 말벌의 일종으로 꿀벌보다 작고 허리가 날씬한 노란 줄무늬가 있는 벌이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니 이 곤충은 날벌레도 잡아먹고 쓰레기통도 뒤진다. 8월에서 9월이 산란기여서 독성이 더 강하다. 게다가 한 번 쏘면 벌침이 빠지는 다른 벌들과 달리 여러 번 쏘아도 벌침이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였다. 병원에서 의사가 열심히 들여다봐도 내 몸에서 벌침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 그래도 내 몸 어딘가에 침이 박혀있을 것 같아 개운치 않다.

저녁에 화장실 욕조에 떨어져 있는 고무줄을 발견했다. 아까 묶은 머리를 풀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이다. 집어서 세면대 위에 올려놓았다. 검은 고무줄에 뭔가 붙어있다. 악. 비명이 새어 나왔다. 벌이다. 벌이 고무줄에 엉겨 붙어 죽어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온 벌만 두 마리였다. 대단한 의기투합이다.

지독한 놈들이다. 내가 어쩔다고 그러는 건지. 가만히 있는 나를 침입자로 알고 온몸을 바쳐 공격하고 장렬하게 전사한 땅벌 두 마리. 내 눈에 뜨인 것이 두 마리이지 밖에서 나를 공격한 벌이 몇 마리인지 모른다. 이 악착같은 근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찮은 벌레지만 목숨 바쳐 삶의 터를 지키고 종족을 지키겠다는 본능이 놀랍다. 벌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벌에 대한 공포심으로 당분간 뒷마당에 나가기 힘들겠다. 고작 그 작은 벌레 때문에 나라는 인간 참 나약하기 그지없구나, 혼자 기가 죽는다.

만물의 영장이면 뭐하나. 생존은 몸집의 크기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숫자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 더하여 그 숫자가 협동하고 있다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갑자기 벌이 더 두려워진다.

< 2017년 9월 홈 사이트 최다 조회 작품 >

모든 사람을 다르게 해부하는 작업, ‘문학’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는 일”이다. 그것을 읽지 않는다면 인간은 일반적, 보편적인 것만을 믿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은 존재다. 신평론가는 “어떤 사람도 정확히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는 없을 그런 상황을 창조하고, 오로지 그 상황 속에서만 가능하고 이해되는 선택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문학”이라고 정의했다.

밀란 쿤데라가 소설에 대해 “신학자, 철학자, 과학자가 전날 짜놓은 양탄자를 밤을 새워 풀어헤치는 것”이라고 정의했듯, 문학은 일반론이나 보편적 명제를 만들어낼 때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고 해부하는 작업인 것이다.

“인간 내면의 충동, 욕망 같은 것을 과학적 데이터로 환원해 모두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학문들이 제아무리 노력해봤자 완벽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예외와 변칙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과학 같은 학문에서는 보편적인 주장을 뒤집을 수 없을 경우 예외는 그냥 무시됩니다. 하지만 인문학에서는 모든 예외와 변칙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 중 90명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10명이 왼쪽에 갈 때, 당신들은 왜 왼쪽에 가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죠. 10명에게도 공통 규칙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10명 각각이 왼쪽으로 가려는 이유를 밝혀내려는 것이 ‘문학’입니다. 문학은 철저히 ‘단독적’이며 ‘개인적’인 것이죠.”

문학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문학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문학 작품을 읽고 스스로 가치를 터득하는 것이다. 문학에 대한 의문의 정답은 역설적이게도 문학 ‘안’에 있다. 그것만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신형철 문학평론가

구연의 시대에서 배우자/ 여세주

우리가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구연 시대를 살아가던 때의 이야기하기 상황을 떠올려 보자. 여럿이 모여서 이불 속에 발을 묻고, 또는 정자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서 이야기판을 벌리곤 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즉 매체는 구연(口演)이었다. 가벼운 행위와 표정을 섞어서 하는 말이었다. 이야기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매우 자유롭게 쌍방 간 상호작용을 하였다.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교환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수정하거나 보태기도 한다. 이야기의 수용자와 생산자가 그때그때 교체될 뿐 아니라, 끼어들기에 의해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쉽게 허물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구연 시대의 이야기판에 사용되던 기법들을 매스미디어의 도래와 함께 대부분 잃어버리고 있었다. 글이나 영상 등의 매스미디어는 생산자가 만들어놓은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즐기는 소비자를 양산시켰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가상공간에서 직접 음성, 사진, 사운드, 음악 등을 이용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판을 갖게 되었다.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다시 구연하던 시대의 이야기 기법들을 되찾아가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장점은 인터랙티브(interactive)의 기술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법은 이미 구연의 시대에 이미 활성화되어 있었다. 구비전승이 이루어지던 이야기판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자가 생성해내는 이야기에 마음대로 끼어들어 이야기를 수정하고 보완할 뿐 아니라, 이야기의 내용을 두고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기법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게임이다. 인터랙티브의 기법은 게임뿐 아니라 광고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에서 그 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비자의 자

유로운 개입과 간섭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광고 ‘오픈 유어 아이즈’에서는 인터랙티브 무비로써 스토리의 각 단계마다 유저들은 시물레이션을 통해 마스크라의 여러 속성들을 테스트해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최고의 마스크라를 제작해 나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는 오직 유저들의 반응에 따라 인터랙티브하게 진행된다.

구연이 이루어지는 이야기판에서는, 직접 경험에 가까운 분위기의 연출도 가능했다. 이야기꾼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호롱불을 끄거나 갑작스런 액션을 취하며 소리를 질러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등은 직접경험에 가까운 분위기 속으로 청중을 밀어 넣어 간접경험을 하게 한다. 전달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런 기법이 매스미디어 콘텐츠나 디지털 콘텐츠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신종 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제작진들이 마스크 없이 병원을 돌아다녀 본 결과 마스크를 하지 않은 2명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리게 된 경험을 전달하거나, 손을 씻는 요령에서 직접 경험하는 장면을 간접 경험케 함으로써 전달효과를 증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설명하기에서 경험하기로 나아가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험하게 하는 스토리텔링은 관광에서는 체험관광의 형태로 이미 널리 퍼져 있다. 체험도 단순체험이 아니라, 주인공의 하루일과 따라가기 등의 스토리를 바탕에 깔고 이루어지는 형태로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다.

이제, 스토리텔링의 기능을 살펴보기로 하자. 스토리텔링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가공의 기법으로 삼으려는 것은 이야기판의 효능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설명하기’에 의존해 왔다. 그러다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상호작용성이나 현장성 등의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

구연 시대의 이야기판을 거의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카툰이나 밴드 등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현대적 이야기판인 셈이다. 아니, 인터넷 환경이 곧 거대한 이야기판이 되고 있다. 웹상의 유저(user)들은 이야기하기의 소비자 이면서 전달자이고 생산자이다. 유저들은 이야기를 소비 하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호모나랜스(Homonarrans)로 거듭나고 있으며,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복사하여 유통시키기도 한다. 구비전승시대의 이야기판에 모인 사람들과 그 역할이 흡사하다. 웹 공간이 크고 작은 스토리텔링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웹 환경에서는 ‘설명하기’보다는 ‘이야기하기’가 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다. 설명하기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며, 이야기하기는 상호작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전달방식이다. 설명하기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시공간 속에 놓이지 못하지만, 이야기하기에서는 시공간의 공유가 이루어진다. 상황의 공유가 이루어지면, 교감이 쉽게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웹 환경에서는 디지털 이미지나 소리(음향) 등을 사용하여 이야기판의 현장성까지 재현해 냄으로써, 이야기판이 지닌 전달의 효과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설명하기에서는 이성의 작용이 일어나지만, 이야기하기에서는 감성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무미건조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야기하기를 해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1. 스토리텔링의 개념

-스토리텔링(storytelling) : 이야기하기. 오랜 세월 인류가 써 먹었던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

-이야기와 이야기하기 : 이야기가 서사성을 가진 우리의 관심거리라고 한다면, 스토리텔링은 그것을 공유하고 상기시키는 수단이며 기법

-오늘날의 스토리텔링 :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져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가리키는 말. 영화, 애니메이션, 연극, 소설 등은 그 자체가 이미 스토리텔링을 거친 성과물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외에는 전달의 기법에 ‘스토리의 속

성(서사)’을 내포하고 있을 때에만 스토리텔링의 결과물로 인정하는 한정이 요구됨. 바꾸어 말하면,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하기 통해 생성된 예술양식을 포함하여, 서사성을 바탕으로 깔고 전달되는 모든 콘텐츠의 기법. 또는 이야깃거리들을 서사적 속성을 가미해 만들어가는 행위

2. 스토리텔링의 효과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 : 인류의 미래를 '스토리의 시대'로 규정.

-사르트르 : ‘인간은 세상사 모든 것을 이야기를 통해 이해한다.’

-이야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 : 이해가 빠름, 상호 교감이 잘 이루어짐, 오래 기억되는 효과.

-이야기는 우리의 생활을 지배한다.

-즐거움을 주는 것가지 형태들은 모두 다 이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사람들은 이야기 형태의 전달방식을 가장 신뢰한다.

-기억에 더 생생하게 남는다.

스토리텔러(storyteller)들이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다. 이제 시작이다.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가야 할 길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개발해야 할 커뮤니케이션 자료는 무궁무진하게 쌓여있기도 하고 스토리텔링을 기다리는 이야깃거리는 무한정 새롭게 나타나기도 한다. 스토리텔링의 미래는 무한하다.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이 실현된다면, 스토리텔링은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콘텐츠의 옷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수필 쓰기에서도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이끌어 들일 필요가 있다. 이야기는 파편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험을 기억에 의해 하나로 이어줌으로써, 삶과 세계를 직접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지식(설명)이 아닌 경험(서사)을 전달하는 것이다. 경험의 주체가 삶의 고비를 어떻게 넘기며 존재의 가치를 발휘해 왔는지 알려 줌으로써,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알라딘 서점 -웨스턴 로데오갤러리점-



점심식사 시간의 로데오갤러리아 쇼핑센터는 차를 세울 수가 없다. 몇 바퀴 돌다 겨우 차를 세우고 건물로 들어섰다. 유리

문을 밀고 들어서니 긴 간이 테이블에 책이 잔뜩 쌓여 있다. 분야별로 정리되어 Sale 팻말을 위에 세우고 뿔혀나가길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이 책을 힐끔힐끔 곁눈길을 주며 지나간다. 중년의 남자가 다가가 건강서적을 들춘다.

서점 안으로 들어갔다. 언제나 푸근한 미소로 맞이해주는 아그네스 김 사장님이 눈인사를 하며 책 주문을 받아 적고 있다. <자존감 수업>을 펼쳐들고 서 있는데 사장님이 인사를 한다. 느린 말투와 정확한 발음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 톤이 다정하고 안정감이 있다.

요즘 어떠세요? 종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 들고 있어요. 안타깝워요. 그녀와 나는 동시에 말했다.

시대의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인터넷의 발달이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잃은 것도 있다. 손가락에 침을 문혀 책장을 넘기는 설레이는 마음은, 손가락으로 클릭하면 화면 전체에 영상과 음악까지 곁들여 요약된 내용을 보여주는 친절에 밀리고 있다.

바로 옆에 여행사가 있다. 여행을 떠나기 직전 들어서 버스 안에서 읽을 책을 사가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 사장님은 고개를 가로 젓는다.

“전혀요. 책 읽기는 쉽지 않지요. 읽는 훈련이 필요하며, 습관이 되어야하고, 의지가 있어야 읽습니다.” 우문현답이다. 버스나 전철 안에서 책을 읽는 대신 핸드폰 놀이를 하는 것이 요즘 풍경이다.

중년층은 소설을 주로 읽고 젊은이들은 경제학이나 영어에 관한 책에 관심이 있다. 분야별로 다양하게 서적을 갖추고 싶지만 공간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아쉽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한국에서 책을 주문하면 발송비 때문에 책을 반품할 수가 없어서 모두 소화하지 않으면 재고로 남게 된다고 한다.

중고 책이 아닌데, 헌책도 아닌 채로 뒤로 밀려나 자리만 차지하는 밟상 신세가 되기에 책을 주문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고충을 토해낸다. 어쩔 수 없이 베스트셀러로 선정 된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독서는 삶의 영역을 풍부하게 해 줍니다. 종이 책이 사라지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차분하게 답해 주는 아그네스 김 사장님이 문학소녀를 꿈꾸며 종로의 서점가를 돌 때 서점 안에서 지나친 사람 중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역시 독서는 종이 책에 밀줄 그어가며 읽어야 제맛이 난다. 책을 한 권 구입해서 이 가을 꼭 빠져봐야겠다.



회원 행시

김수영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거지 행세로 구걸하며
도처에서 할아버지께 지은 죄를
사죄하려 풍류객이 된 시인 김삿갓.

김태수

산바람 일어나는 금산사 모악산
거침없는 미륵 바람 없는 듯 오간다는 거
도량수 석가모니도
사리물길 다반사

김화진

산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거역하지 못할 운명처럼
도무지 지금도 알 수 없는 일
사랑은 떠났습니다

배헬레나

산에 가면
거저
도를 알게 되지.
사람과 자연의 대화로.

이리나

산 속을 헤메일 때 이 손을
거친 파도에 밀릴 때 꼬옥 잡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사뿐히 빛으로 인도하소서

신혜원

산이 아무리 좋다한들
거기서 마냥 살 수는 없다네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산이 그림고
사람들 속에 북일수록 산을 찾아가고 싶다네

김영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쫓쫓, 첫날밤 치루고 각시 죽자
거시기만 가리고 홀라당 옷 다 벗고 다니는데
도대체 사인이 뭘까 온 동네가 궁금 떠들썩
사정사정 속사정? 죽은 사람 말 없고 답답한
새 신랑, 알몸은 웬 일?

김자넷

산다는 것은
거센 파도에 몸을 싣고 파도타기를 즐기는 것
도저히 즐길 수 없는 큰 파도가 오거든
사뿐히 빠져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리.

성민희

산자락 깔고 앉아 야경을 즐기던 집인데
거친 짐승의 울음도 낭만적이던 집인데
도무지 감당 못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사방에서 몰려오는 이 산불을 어찌할꼬

정조앤

산골짜기 마다 가을햇살에 익어 가누나
거친 바람도 걸음을 멈추고 잠시 쉬고 있다
도시를 떠나 가을정취에 흠뻑 빠지고 싶다
사랑하는 이여! 낙엽 밟으며 풍경 속으로 함께 갑시다

2018년 겨울호 행시제목

나 지금 가네

[회원 동정 및 문단소식]

- * 임지나 회원 첫 수필집 <나 여기 가고 있다>를 출판사 [문학의 숲]에서 상재했다.
출판기념회 : 일시 2017년 10월 220일 금요일 오후 6시
장소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 라마다 인
- * 2017년 민족시인 문학의 밤.
2017년 9월 27일 한국문화원에서 상황리에 마쳤다.
- * 남훈 전달문 시인 79세로 별세하다.
- * 임지나 회원의 남편과 조옥동 회원의 어머니께서 별세 하다.

내게 있어 수필이란 무엇인가? / 최민자(수필가)

- * 수필은 나에게 있어 존재의 동력이다. 삶의 날숨과 같은 것이다. 내 이름을 찾아준 도반이다. 내안의 어둠과 밖의 밝음을 소통시키는 매개체다.
 - * 수필을 쓴다는 것은 순간순간의 보석 같은 기억들을 엮어내고 그리움과 같은 내면세계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글이 곧 수필이다. 나의 내면은 또 하나의 소유주다.
 - * 수필쓰기는 묵묵히 파 들어가야 하는 수작업이다. 자동화할 수 없는 작업이다. 그를 위한 노력은 곧 독서와 메모<적바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수필가는 독자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를 보태주는 사람이다. 고로 통찰력을 깊게 해주는 독서에 열중해야, 즉 활자를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결국 생산라인의 최종 상품이 좋으려면 원료가 좋아야한다. 다방면의 원료(지식)을 풍부하게 확보해야 한다.
- * 기억이란 게 비누 거품 같아서 그때그때 포획해 두지 않으면 날아가 버린다. 즉 적바림<메모>를 해 뒤야 한다. 메모의 최종작역은 자기 자신이다. 잉태기간이 필요하듯이 작품도 그와 같다고 생각한다.
 - * 수필은 신변잡기가 되어 버릴 수 있다. 문학의 궁극적 목적은 감동이라고 볼 때 수필을 쓴다는 것은 독자에 대한 서비스다. 내면의 한(恨)을 꺼내는 것은 스스로를 구제하는 수단은 되겠지만 적어도 독자에게 느낌표 하나, 물음표 하나라도 쥐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 * 퇴고(推敲)에서 차이가 난다. 결국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다.
- 나에게 있어 역점을 두는 것은 ‘덜어내기’다.(부사, 형용사 등) 다이어트를 많이 해야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 가차 없이 덜어내야 통풍이 잘 되고 결국 독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

< 회비, 이사회비 및 찬조금 납부 상황 >

2017년 (9월 30일 현재)

[이사회비] 김화진, 성민희, 유숙자, 정찬열, 하정아, 김카니, 홍순복
이현숙, 장덕영, 정조앤, 한영, 박유니스, 조만연, 김석연
이인숙, 성영라, 이정호, 백인호

[연회비] 양상훈, 신소정, 차덕선, 전로사, 이성숙, 김자넷, 임지나,
김윤기, 신혜원, 최미자, 조옥동, 김탁제, 이원택, 최근자, 김영교

[찬조금] 성민희, 유숙자, 박유니스, 모니카 류, 김탁제, 김영교
강신용(식사비), 이성숙(퓨전수필), 임지나(식사비)

[웹사이트 서재 가입비 2017]

신소정, 하정아, 최숙희, 최근자, 김자넷

[출판비] 최미자, 이성숙, 양상훈, 김화진, 김자넷, 이원택, 신순희, 임
창현, 김령, 김석연, 김수영, 최근자, 조만연, 조옥동, 박신아, 이정호,
유숙자, 백인호, 김영교, 정조앤, 임지나, 이현숙, 한영, 배헬레나, 최숙
희, 성영라

월회비/ \$120 이사회비/ \$200 웹사이트 서재 가입비/\$50

모든 회비를 정산해 주십시오.(2017년 결산: 10월)

출판비는 원고와 함께 납부해 주십시오

**본 협회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회비 납부 상황을 참고하시고 오류나 착오가 있을 시나,
혹시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실 분은

회계 정조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ay to Order : KEAA /

주소 22702 Fonthill Ave. Torrance, CA 90505

회계 정조앤 (Joanne Chung) jchung315@yahoo.com

< 편집후기 >

언덕 길을 허걱대며 올라온 느낌이다. 지난 두 달은 이래저래 버거웠
다. 한 숨 돌리려 바닥에 주저 앉는다.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겠
지. <현>

해마다 10월이면 ‘악마의 바람(Diablo Winds)’을 타고 확산하는 대형 산
불이 올해는 유난히 더 거칠다.

/나파밸리 등 17명 사망, 150명 실종/ 한인 소유 6채 등 2000여 채 전
소 / 오렌지카운티는 24채 전소/ 1만여 명 대피/9개교 휴교/ 진화율
25% 남짓/

아이구, 이 아수라장 지구촌을 어이할꼬 <민>

계간 퓨전수필 2017년

가을호

통권 제59호

발행일 2017년 10월 19일

발행처 재미수필문학가협회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10637 Owensmouth Ave.

Chatsworth, CA. 91311

U.S.A.

<http://jaemisupil.com>

발행인 김화진

catharina0314@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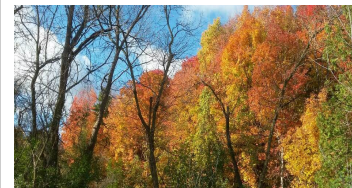
편집인 성민희

janelyu36@gmail.com

편집인 이현숙

sook1961@hotmail.com

김카니의 사진과 글



단풍빛 곱게

물든 길

걷다 걷다 돌아보니

저 만치

내 발자국에

그리움이 따라온다.

외로움도 따라온다.